

아동의 반응적,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부모양육태도의 영향

The Effects of Tem Perament and Parenting on Children'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이 주 리*

Dept. of Child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Lee, Ju-Li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dditive and interactive effects of temperament and parenting on children'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The participants were 2844 4th graders(1524 boys, 1320 girls) from the Korea Youth Panel Study(KYPS). The results show that : (1)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influenced reactive aggression, whereas sensation seeking influenced proactive aggression. Children's anger/frustration influenced both subtypes of aggression. (2) Harsh parenting influenced children's proactive aggression. (3) There are some significant temperament × temperament and temperament × parenting interactions.

▲주요어(Key Words) : 기질(Temperament),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 선행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 양육태도(Parenting)

I. 서론

아동의 공격성 형성에는 기질적 요인과 양육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공격성은 또래 집단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 가야 하는 아동기에 여러 가지 적응문제를 일으키므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최근의 한 연구(Xu, Farver, & Zhang, 2009)에서 중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또래 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공격성을 기능과 동기에 따라 반응적(reactive) 공격성과 선행적(proactive) 공격성 등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다. 반응적 공격성은 좌절-공격성 이론(Berkowitz, 1962, Xu et al., 2009)에서 재인용)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상대방의 위협이나 도발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으로서 공격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Dodge, 1991). 반응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좌절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쉽게 분노를 느끼고 적대적인 태도를 형

성한다(Dodge, 1991; Hubbard, Dodge, Cillessen, Coie, & Schwartz, 2001). 그래서, 이들은 또래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한다(Poulin, & Boivin, 2000). 반면, 선행적 공격성은 Bandura(1973)의 사회학습이론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Xu et al., 2009), 공격 행동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 경험과 관련이 된다(Crick & Dodge, 1996; Smithmyer, Hubbard, & Simons, 2000). 좌절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공격성을 표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 혹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서 공격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Dodge, 1991). 반응적 공격성과 달리 또래 따돌림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리더쉽과 정적인 관련이 보고된다(Poulin & Boivin, 2000). 그러나, 선행적 공격성이 높은 아동들은 사회적 문제(Dodge, Lochman, Harnish, Bates, & Pettit, 1997), 비행, 적대적 반항장애(Vitaro, Gendreau, Tremblay, & Oligny, 1998)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이처럼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시켜 활

* 주저자 · 교신저자 : 이주리 (E-mail : julie@cau.ac.kr)

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rick, & Dodge, 1996; Dodge et al., 1997; Hubbard et al., 2001; Hubbard et al., 2002; Poulin, & Boivin, 2000; Smithmyer et al., 2000; Vitaro, Barker, Boivin, Brendgen, & Tremblay, 2006; Vitaro, Brendgen, & Tremblay, 2002).

그러나, 동양권에서는 중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Xu et al.(2009)의 최근 연구 정도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혹은 아동의 기질을 살펴본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김재엽, 정윤경, 2007; 김정원, 김현주, 2007; 김지현, 2009; 박성연, 2002; 박지숙, 임승현, 박성연, 2009; 오채미, 공인숙, 2007; 윤진주, 강신영, 이복주, 2005; 이주리, 2008), 공격성에 대하여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으로 세분화 시켜 살펴보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하위 유형의 공격성 - 반응적 공격성, 선행적 공격성 - 형성에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Xu et al.(2009)은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 요인과 아동의 기질적 요인들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각각 다른 형태의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두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각각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기질들끼리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제안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첫째,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 둘째, 아동의 기질들끼리의 상호작용의 영향, 셋째,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은 동일하게 공격성의 큰 개념 하에 놓여 있지만, 각각 다른 성질의 공격행동을 보인다. 선행적 공격성이 목표 중심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공격행동인 반면, 반응적 공격성은 좌절 상황의 반응으로서 나타나는 공격 행동이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각기 다른 기질들이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다. 먼저, 반응적 공격성에는 분노/좌절과 같은 기질적 특성이 작용한다. 진행 중인 과제나 목표에 대한 방해가 있을 때 높은 부정적 정서를 보이거나, 기질적으로 분노/좌절에 취약한 아동들은 어떠한 위협 혹은 도발적인 상황에서 반응적인 공격성이 높게 표출된다(Rothbart, & Bates, 2006). 자주 울거나 짜증을 내는 등 부정적인 정서성이 아동의 선행적 공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반응적 공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Vitaro et al., 2006), Vitaro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정서적인 반응성이 높은 아동들이 선행적 공격성보다 반응적 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냈다.

반면, 또 다른 기질적 소인인 '감각추구성향'은 선행적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Raine, Reynolds, Venables, Mednick,

& Farrington, 1998). 감각추구성향은 다양하고 진기하고 복잡한 경험이나 감각을 추구하기 위해 신체적, 사회적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특성이다(Zuckerman, 1979, Xu et al., 2009에서 재인용). Raine et al.(1998)은 3세 때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였던 유아들이 11세가 되었을 때 싸우고 공격하고 위협하며 타인의 소유물을 파괴하는 등의 공격행동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감각추구성향이 선행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은 각각 다른 기질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되지만, 두 가지 형태의 공격성과 모두 관련이 되는 또 다른 기질적 특성이 있다. 이는 '정서적 규제(Effortful control)'로서, 행동을 지연시키거나 주의를 전환함으로써, 혹은 부적절한 행동을 억압하거나 적절한 행동을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Kochanska, Murray, & Harlan, 2000). 최근의 한 선행연구에서 정서적 규제가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 모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Xu et al., 2009). 뿐만 아니라, 동일한 연구(Xu et al., 2009)에서 정서적 규제는 아동의 공격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다른 기질적 위험요인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반응적 공격성에 관련해서는 감각추구성향의 부정적 역할을 완화한 반면, 선행적 공격성과 관련해서는 분노/좌절 기질의 부정적 역할을 완화하였다. 이는 기질들끼리도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반응적, 선행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아동의 공격성은 이처럼 기질적 특성 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받는다.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처벌적인 양육태도가 공격성의 하위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Vitaro et al., 2006; Xu et al., 2009).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체벌과 학대의 구분이 모호할 만큼 아동에 대한 체벌에 관한 분위기이다. 그러므로, 처벌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동은 특히 선행적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Dodge, 1991, Xu et al., 200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의 공격성은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모두 관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Paterson & Sanson(1999)은 아동의 기질적인 경직성(inflexibility, 부정적 정서성과 부적응으로 측정됨)이 부모의 처벌적인 양육태도와 상호작용하며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모의 처벌이 높은 아동들 사이에서는 기

질적인 경직성이 높아질수록 외현화 문제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또 다른 연구(Xu et al., 2009)에서 낮은 감각 추구 성향을 가진 아동들은 부모가 처벌적인 양육을 하여도 공격성이 증가하지 않았으나, 높은 감각 추구 성향을 가진 아동들은 부모가 처벌적인 양육을 가할수록 유의하게 공격성이 높아졌다. 이는 기질적인 위험요인이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대로, 긍정적인 기질적 특성(정서적 규제)은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위험을 보호할 가능성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연구 목적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감각추구성향, 분노/좌절, 정서적 규제)과 부모의 양육태도(처벌적 양육태도, 감독)의 각각의 영향, 둘째,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대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끼리의 상호작용의 영향, 셋째, 아동의 공격성 유형에 대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의 영향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공격성 유형에 따른 적절한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기질적 특성(감각추구성향, 분노/좌절, 정서적 규제)과 부모의 양육태도(처벌적 양육태도, 감독)는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기질적 특성들(감각추구성향, 분노/좌절, 정서적 규제)은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동의 기질적 특성(감각추구성향, 분노/좌절, 정서적 규제)과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각각 어떠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청소년패널 조사(KYPS) 초 4 패널 데이터(2004년)를 사용하였다. 이 데이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으로 대표성 있게 추출되었다. 연구대상은 총 2844명(남 1524명, 여 1320명)의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었으며, 이 연령

그룹은 비교적 공격적 행동의 성격과 기능이 조직화 되고 안정적으로 되는 발달적 시기이다(Dodge & Coie, 1987; Poulin & Boivin, 2000a). 연구대상자들의 가족구성형태는 95.5%가 양부모 가정이었다. 아버지 교육수준은 고졸 43.3%, 대졸 35.0% 등, 직업은 사무직 28.3%, 장차, 기계조립 15.3%, 기능원 14.6%, 판매직 12.2% 등이었으며, 어머니 교육수준은 고졸 61.0%, 대졸 23.1% 등이었고 49.9%가 가정주부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평균 305.64원(SD=255.081)이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3가지(감각추구성향, 분노/좌절, 정서적 규제)로 측정되었다. 모두 5점 Likert 척도로써 각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추구성향은 KYPS의 '나는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1문항을 사용하였다(M=1.96, SD=1.15). 둘째, 분노/좌절은 KYPS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나는 내 자신이 금방 터질 것 같은 화약과 같다고 생각한다.' 등 4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M=1.97, SD=0.82), Cronbach's α 는 .709였다. 셋째, 정서적 규제는 KYPS의 '나는 피로할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기분 나쁜 일을 빨리 잊으려고 애쓰는 편이다.' '나는 화가 나면 화를 가라앉히려려고 노력한다.' 등 3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M=3.37, SD=0.93), Cronbach's α = .629 였다.

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2가지(처벌적, 감독)로 측정되었다. 모두 5점 Likert 척도로써 각 문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벌적 양육태도는 KYPS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등 2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M=1.56, SD=0.81), Cronbach's α = .651이었다. 둘째, 감독은 KYPS의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4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M=3.42, SD=0.96), Cronbach's α = .797 이었다.

3) 아동의 공격성

아동의 공격성은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의 하위

유형 2가지로 측정되었다. 첫째, 반응적 공격성은 5점 Likert 척도로서, KYPS의 '나는 아주 약이 오르면 다른 사람을 때릴 수도 있다.' '누군가 나를 때린다면 나도 그 사람을 때린다.' 등 2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M=3.11, SD=0.99). Cronbach' α = .662 이었다. 둘째, 선행적 공격성은 KYPS의 '다른 친구를 집단 따돌림(왕따)시키기'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다른 친구를 헐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음)하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기(빼앗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기' 등 5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M=1.05, SD=0.13). 응답은 각 문항들에 대해 '전혀 없다(1점)' 와 '있다(2점)' 로 코딩되었다. Cronbach's α = .488로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Nunnally의 이론에서처럼, '예-아니오' 수준의 척도가 Cronbach's α 값을 낮추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Brody, Dorsey, Forehand, & Armistead, 2002, 재인용).

3. 자료 분석

SPSS 15.0 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치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표 1>에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기질 변인들과 아동의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 간 상관관계

<표 1>에 나타나 있듯, 아동의 감각추구성향과 분노/좌절의 기질적 특성은 반응적 공격성 및 선행적 공격성과 각각 모두 유의하게 관련되었다(모두 $p < .01$). 정서적 규제 또한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나, 상관계수가 .10 이하로 나타나 2000명이 넘는 표본으로 인해 통계적 유의도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 간 상관관계

<표 1>를 통해 보면, 처벌적 양육태도는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 < .01$). 부모의 감독은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과 부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으나($p < .01$), 상관계수가 .10 이하로 나타나 큰 표본으로 인해 통계적 유의도가 과대하게 부풀려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기질 간 상관관계

<표 1>를 통해 알 수 있듯, 부모의 처벌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분노/좌절과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나(모두 $p < .01$), 아동의 정서적 규제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p < .01$). 반면, 부모의 감독은 아동의 감각추구성향 및 분노/좌절과는 모두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나(모두 $p < .01$), 아동의 정서적 규제와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p < .01$).

2. 아동의 반응적,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각 아동의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와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들 간 상호작용의 효과 및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상호

<표 1> 변인들 간 상관관계

	1. 감각추구성향	2. 분노/좌절	3. 정서적 규제	4. 처벌적 양육태도	5. 부모감독	6. 반응적 공격성	7. 선행적 공격성
1	1						
2	.266**	1					
3	-.047*	.007	1				
4	.148**	.233**	-.146**	1			
5	-.114**	-.124**	.219**	-.175**	1		
6	.241**	.468**	.050**	.113**	-.082**	1	
7	.144**	.216**	-.063**	.161**	-.081**	.183**	1
M	1.96	1.97	3.37	1.56	3.42	3.11	1.05
(최대-최소)	(1-5)	(1-5)	(1-5)	(1-5)	(1-5)	(1-5)	(1-2)
SD	1.15	0.82	0.93	0.81	0.96	0.99	0.13

* $p < .05$, ** $p < .01$

작용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의 기질 변인들(감각추구성향, 분노/좌절, 정서적 규제)과 기질 변인들 간 상호작용항(감각추구성향 × 정서적 규제, 분노/좌절 × 정서적 규제)을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처벌적 양육태도, 감독)를 설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이원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였다(표 2). 이러한 분석 단계는 Xu et al.(2009)의 선행연구에 근거하였다.

1)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주효과)

<표 2>를 통해 보듯,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분노/좌절은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beta=.551, p<.001, \beta=.239, p<.001$), 정서적 규제는 반응적 공격성에($\beta=.100, p<.05$), 감각추구성향은 선행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208, p<.01$).

부모의 양육태도는 처벌적 양육태도가 선행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beta=.099, p<.001$), 반응적 공격성에는

어떤 양육태도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기질 변인들 간 상호작용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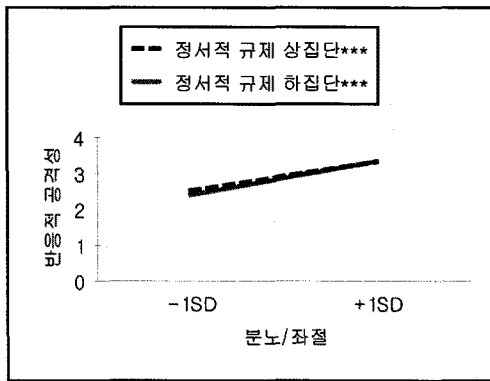
<표 2>에서 제시하였듯, 기질 변인들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반응적 공격성에 대해서 나타났다. 분노/좌절과 정서적 규제 간 상호작용의 영향이 유의하게 검증되었는데($\beta=-.140, p<.05$),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정서적 규제와 분노/좌절의 평균을 중심으로 각각 상(M+1SD)/하(M-1SD)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림 1>에서 보듯, 두 집단 모두 분노/좌절 성향이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서적 규제 상집단에 비해 정서적 규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정서적 규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에 비해 분노/좌절 성향이 강할수록 더 빠르게 반응적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기질 변인들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아동의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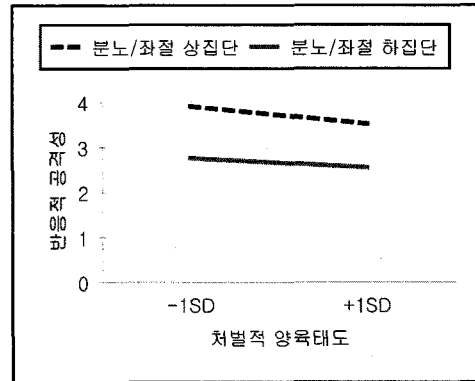
	독립변인	β	F	R2(Δ R2)
반응적 공격성				
1단계	감각추구성향	.077		
	분노/좌절	.551***		
	정서적 규제	.100*	177.104***	.238
	감각추구성향 × 정서적 규제	.056		
2단계	분노/좌절 × 정서적 규제	-.140*		
	처벌적 양육태도	-.002	126.888***	.239(.001)
3단계	감독	-.027		
	처벌적 양육태도 × 감각추구성향	.067		
	감독 × 감각추구성향	.022		
	처벌적 양육태도 × 분노/좌절	-.180**	69.819***	.243(.004*)
	감독 × 분노/좌절	.089		
	처벌적 양육태도 × 정서적 규제	.140*		
3단계	감독 × 정서적 규제	.105		
	선행적 공격성			
1단계	감각추구성향	.208**		
	분노/좌절	.239***		
	정서적 규제	.025	36.326***	.060
	감각추구성향 × 정서적 규제	-.133		
2단계	분노/좌절 × 정서적 규제	-.056		
	처벌적 양육태도	.099***	30.598***	.070(.010***)
3단계	감독	-.026		
	처벌적 양육태도 × 감각추구성향	.143**		
	감독 × 감각추구성향	.000		
	처벌적 양육태도 × 분노/좌절	.010	17.505***	.075(.004*)
	감독 × 분노/좌절	.083		
	처벌적 양육태도 × 정서적 규제	.126		
3단계	감독 × 정서적 규제	.140		

p* $<.05$, p** $<.01$, p***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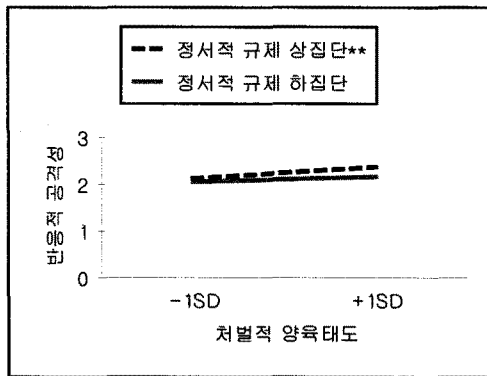


***p < .001

<그림 1> 분노/ 좌절과 정서적 규제의 상호작용 효과 (반응적 공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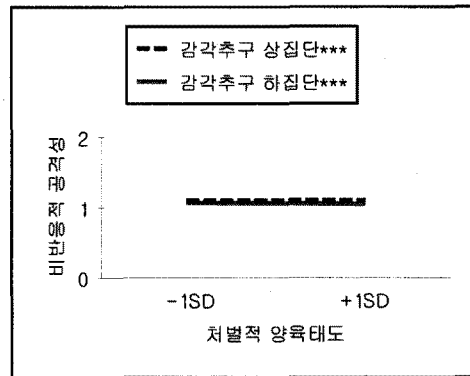


<그림 2> 차별적 양육태도와 분노/좌절 간 상호작용 효과 (반응적 공격성)



**p < .01

<그림 3> 차별적 양육태도와 정서적규제 간 상호작용 효과 (반응적 공격성)



***p < .001

<그림 4> 차별적 양육태도와 감각추구성향 간 상호작용 효과 (선행적 공격성)

3)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의 영향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상호작용의 효과는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 모두에서 나타났다. 우선, 반응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차별적 양육태도와 분노/좌절, 차별적 양육태도와 정서적 규제 간 상호작용의 영향이 있었다($\beta = -.180, p < .01, \beta = .140, p < .05$). 이러한 상호작용의 효과는 각각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제시하였다. 차별적 양육태도와 분노/좌절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상(M+1SD)/하(M-1SD) 집단으로 나누었다. 차별적 양육태도와 분노/좌절 간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는데, 분노/좌절 상집단에서는 차별적 양육태도와 상관없이 분노/좌절 하집단보다 반응적 공격성이 일정하게 높았다. 그러나, 어떠한 집단에서도 차별적 양육태도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차별적 양육태도와 정서적 규제 간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에서 제시하였듯, 오히려 정서적 규제 상집단의 기울기가 정서적 규제 하집단의 기

울기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차별적 양육태도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정서적 규제 상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선행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차별적 양육태도와 감각추구성향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 4>를 통해 보듯, 감각추구 하집단(M-1SD)에서는 차별적 양육태도가 강할수록 오히려 선행적 공격성이 감소한 반면, 감각추구 상집단(M+1SD)에서는 차별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든 낮든 일정하게 선행적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에서 차별적 양육태도가 선행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반응적 공격성 및 선행적 공격성의 2가지 하위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아동의 기질(감각추구성향, 분노/좌절, 정서적 규제)과 부모의 양육태도(차별

적 양육태도, 감독)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감각추구 성향은 선행적 공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반면, 정서적 규제는 반응적 공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분노/좌절은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감각추구성향이 선행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도와 아프리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Raine et al.(1998)의 연구, 중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Xu et al.(2009)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기질적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는데, 분노/좌절과 정서적 규제 간 상호작용이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기질이 정서적 규제 상집단에 비해 정서적 규제 하집단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하여, 정서적 규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은 정서적 규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에 비해 분노/좌절 성향이 강할수록 더 빠르게 반응적 공격성이 높아졌다. 이는 정서적 규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이 분노/좌절 성향에 더 취약함을 시사한다.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분노/좌절성향의 영향이 정서적 규제 수준 상집단에서보다 하집단에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아동 대상의 Xu et al.(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서구 사회의 선행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Esienberg et al.(1996)의 연구에서도 자아조절 수준이 낮은 아동들 사이에서 부정적 정서성과 문제행동 간에 더 강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감각을 추구하는 아동의 기질적 성향이 그들의 선행적 공격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분노/좌절이 반응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 보편적(culture universal)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구결과가 문화특정적인(culture-specific)것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규제가 반응적 공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분노/좌절은 반응적 공격성과 선행적 공격성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규제는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 모두에 영향을 미쳤고(Xu et al., 2009), 분노/좌절은 반응적 공격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Vitaro et al., 2006; Xu et al., 2009).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서적 규제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선행적 공격성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서적 규제가 두 하위 유형의 공격성에 모두 영향을 미쳤던 선행연구는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였다. 한국에서는 현재 아동·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을 포함한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비반응적 공격성은 사실상 이러한 학교 폭력과 연관이 된다. 이 시기 아동들의 또래 간 우정은 무리를 이루는 '집단화'가 특징이며, 강한 소속감을 형성한다. 자신의 집단에 대한 강한 소속감은 타집단에

대한 배타성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발달과정의 특성이 현재 한국에서는 학교 폭력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서적 규제만으로는 조절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는 처벌적 양육태도가 선행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반응적 공격성에는 부모의 처벌적인 양육태도나 감독 모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문화보편적(culture universal)인 특성으로 처벌적 양육태도가 선행적 공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해석해 볼 수 있다. 부모의 처벌적인 양육행동 자체가 아동에게 모델링이 되어 아동이 어떠한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공격을 수단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Xu et al.(2009)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부모의 처벌적 양육태도가 중국 아동의 선행적 공격성과 유의하게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해 사회학습이론으로써 설명하였다. 부모들이 아동에 대해 처벌적인 양육방식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동에게 그러한 부모의 행동이 기능적인 것으로 강화되어 이후 아동이 또래 관계에서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부모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처벌적인 양육이 반응적 공격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처벌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 서구 아동과 중국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Vitaro et al., 2006; Xu et al., 2009)과 다른 결과로 문화 특정적(culture-specific)이었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자녀교육관을 가지고 있어 훈육시 신체적인 체벌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부모의 처벌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발달에 핵심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 따르면, 한국 아동들의 반응적 공격성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아동의 분노/좌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동의 기질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다양한 상호작용 효과도 나타났다. 아동의 기질적 요인과 부모의 양육태도간 상호작용에서도 문화 특정적(culture-specific)이 나타났다. 우선,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에 대한 처벌적 양육태도와 정서적 규제 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는데, 반응적 공격성의 기질이 정서적 규제 하집단에서 보다 오히려 정서적 규제 상집단에서 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상과 달리, 정서적 규제 수준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오히려 정서적 규제 수준이 높은 아동들 사이에서 처벌적 양육태도가 강할수록 반응적 공격성이 더 높아진 것이다. 처벌적 양육태도가 반응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도 정서적 규제 상집단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의미 있는 새로운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규제는 긍정적인 기질적 특성으로서, 아동의 공격성에 대

하여 다른 위험요인(예를 들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들의 부정적 역할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Xu et al, 2009). 이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스스로의 적절한 정서, 행동 통제는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통제는 오히려 아동의 자연스러운 감정 표출을 억압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Eisenberg et al(2001)의 연구에서도 너무 과도하거나 부족한 통제는 가끔은 적합한 정서규제는 아니라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정서적 규제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부모의 처벌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스트레스를 더욱 야기하여 공격성이 더 많이 표출되었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평균 정서적 규제 점수가 5점 Likert에서 3.99로 높았기 때문에 대체로 정서 규제 수준이 높았다.

아동의 선행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처벌적 양육태도와 감각추구성향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 관계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는데, 감각추구 하집단에서는 처벌적 양육태도가 강할수록 오히려 선행적 공격성이 감소하였다. 이는 Xu et al.(2009)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반면, 감각추구 상집단에서는 처벌적 양육태도 수준이 높든 낮든 일정하게 비반응적 공격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체벌 교육의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아동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른 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엄격한 훈육 방식으로서 종종 체벌이 허용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본다면, 이러한 양육방식이 기질적으로 감각추구성향이 낮은 아동들에게는 적절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질적으로 감각추구성향이 높은 아동들의 선행적 공격성을 낮추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횡단자료는 독립변인의 시간적 우선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통해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2가지 유형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응답에 있어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편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에 대해 또래보고나 교사보고를 통한(multi-informant) 측정도구를 활용할 것이 권장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2차 자료의 한계로 인해 문항 활용에 제한점을 가졌다. 처벌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반응적 공격성의 측정에 2문항만을 활용하는 등 사용된 일부 척도의 문항 수가 적은 편이었으며, 특히 감각추구성향에 대해서는 1문항으로서 측정된 한계점을 가진다. 예-아니오 척도로 인해

나타난 선행적 공격성의 낮은 신뢰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기질과 양육태도의 영향을 보다 확고히 설립하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선행적 공격성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적 공격성을 설명하는 다른 변인들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선행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보다 폭넓고 심도있게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아동의 공격성을 반응적 및 선행적 공격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아동의 기질 변인들과 부모의 양육태도 간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다른 문화권에서의 동일주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는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정원·김현주(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아동교육*, 16(2), 85-93.
- 김지현(2009). 아동의 성과 공격성 유형에 따른 어머니 양육행동, 아동의 정서지능과 일상적 스트레스 수준의 차이. *아동학회지*, 30(6), 489-504.
- 김재엽·정윤경(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공격성 및 폭력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14(5), 169-197.
- 박성연(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지숙·임승현·박성연(2009). 아동의 성, 기질,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사회적 위축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0(3), 85-98.
- 오채미·공인숙(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39-149.
- 윤진주·강신영·이복주(2005).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5), 761-770.
- 이주리(2008). Data Mining을 이용한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 탐색. *인간발달연구*, 15(4), 51-65.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rkowitz, L. (1962). *Aggression: A social psychological analysis*.

- New York: McGraw-Hill.
- Brody, G. H., Dorsey, S., Forehand, R. & Armistead, L. (2002).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s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single-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3*(1), 274-286.
- Crick, N. R., & Dodge, K. A. (199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67*(3), 993-1002.
- Dodge, K. A. (1991).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D. Pepler & K. Rubin(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201-218). Hillsdale, NJ: Erlbaum.
- Dodge, K. A., Lochman, J. E., Harnish, J. D., Bates, J. E., & Pettit, G. S. (1997).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school children and psychiatrically impaired chronically assaultive youth.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1), 37-51.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Murphy, B. C., Losoya, S. H., & Guthrie, I. K. (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Fabes, R. A., Guthrie, I. K., Murphy, B. C., Maszk, P., Holgren, R., et al. (1996).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problem behavior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141-162.
- Hubbard, J. A., Dodge, K. A., Cillessen, A. H. N., Coie, J. D., & Schwartz, D. (2001). The dyadic nature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boys'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268-280.
- Hubbard, J. A., Smithmyer, C. M., Ramsden, S. R., Parker, E. H., Flanagan, K. D., Dearing, K. F., et al., (2002). Observational, physiological, and self-report measures of children's anger: Relation to reactive versus pro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73*(4), 1101-1118.
- Kochanska, G., Murray, K. T., & Harlan, E. T. (2000). Effortful control in early childhood: Continuity and change, antecedents, and implications for soci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6*(2), 220-232.
- Nunnally, J. C. (1967).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 McGraw-Hill.
- Paterson, G., & Sanson, A. (1999). The association of behavioral adjustment to temperament, parenting, and family characteristics among 5-year-old children. *Social Development, 8*(3), 293-309.
- Poulin, F., & Boivin, M. (2000).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Evidence of a two-factor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2*(2), 115-122.
- Raine, A., Reynolds, C., Venables, P. H., Mednick, S. A., & Farrington, D. P. (1998). Fearlessness, stimulation-seeking, and large body size at age 3 years as early predispositions to childhood aggression at age 11 yea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8), 745-751.
- Rothbart, M. K., & Bates, J. E. (2006). Temperament. In W. Damon & R. M. Lerner(Series Eds.) & N. Eisenberg(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6th ed., pp.99-166). New York: Wiley.
- Smithmyer, C. M., Hubbard, J. A., & Simons, R. F. (2000).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delinquent adolescents: Relations to aggression outcome expectancie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9*(1), 86-93.
- Vitaro, F., Barker, E. D., Boivin, M., Brendgen, M., & Tremblay, R. E. (2006). Do early difficult temperament and harsh parenting differentially predict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5), 685-695.
- Vitaro, F., Brendgen, M. & Tremblay, R. E. (2002). Reactively and proactively aggression children: Antecedent and subsequent characteristic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4), 495-505.
- Vitaro, F., Gendreau, P. L., Tremblay, R. E., & Olinny, P. (1998).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differentially predict later conduct proble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9*(3), 377-385.
- Xu, Y., Farver, J. A. M., & Zhang, Z. (2009). Temperament, harsh and indulgent parenting, and Chinese children's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80*(1), 244-258.
- Zuckerman, M. (1979). Sensation seeking: Beyond the optimal level of arousal. Hillsdale, NJ: Erlbaum.

□ 접수 일 : 2010년 05월 06일

□ 심사 일 : 2010년 06월 08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8월 01일